

# 대학교 임업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Problems and Development Measures of Forestry Education of University

윤여창<sup>1</sup> · 김의경<sup>2\*</sup> · 우종춘<sup>3</sup> · 이준우<sup>4</sup>

(<sup>1</sup>서울대학교 · <sup>2</sup>경상대학교 · <sup>3</sup>강원대학교 · <sup>4</sup>충남대학교)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임업전문인을 교육시키는 대학의 교육내용이 급변하는 국내의 변화, 즉 국내적으로는 학부제의 도입과 복수전공 등과 같은 대학의 개혁이요, 국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주된 취업처는 산림청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임업관련부서, 산림조합 등이 주된 수요처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대학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 1) 대학별 교육실태 관련자료 수집

국립대학교 12개 학교, 사립대학교 8개 학교 등 총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혁, 교수진, 연도별 커리큘럼 변화내용, 연도별 졸업이수학점의 변화내용, 졸업생 취업현황, 연습림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2) 대학졸업자 채용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대학졸업자 채용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은 기관별로 행정계통의 협조를 얻어 수행하였으며, 산림조합의 경우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산림청은 총220부, 임업연구원 61부, 산림조합 29부 등 총 31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87.9%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직업내용을 살펴보면 직종은 행정·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직급은 7~9급 공무원이 전체응답자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근속연한은 10~20년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10년으로 나타났다. 업무유형을 보면 행정사무관리가 전체의 69.0%로 나타났다.

### 3) 외국의 입학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외국의 입학교육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독일, 일본, 미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1) 대학의 입학교육실태를 파악해 보면 사립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입학관련학과가 통폐합되는 움직임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교수1인당 학생수 등을 살펴보면 열악한 수준의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 교과과정도 학부제 및 복수전공제의 도입으로 전공이수학점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전공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현장실습교육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임업전문가 채용기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채용방식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2.4%가 특채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임업이라는 전문직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4.6%가 신규채용시 자격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한방법은 전공자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은 응답자의 20.9%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부하직원의 전공지식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율은 32.9%이고, 신규채용 부하직원의 현장관리감독능력은 불과 10.4%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직원의 발표력·표현력에 대하여도 30.4%만이 만족하고 있으며, 채용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직무교육은 응답자의 9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입학교육의 실수요자인 입학졸업생의채용기관이 생각하는 대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먼저 현장 기술지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50.6%가 꼽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기술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공분

야의 실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이론이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상아탑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점, 교수들의 능력이나 실무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학이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가 생각하는 대학 입학교육의 개선방안을 설문한 결과 다양한 개선안이 개진되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44.8%가 현장실습의 강화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학연계의 필요성, 교수들의 자질함양과 학생지도의 철저, 교과목의 다양화, 입학에 대한 비전제시, 임업 공무원이 교육할 수 있는 과정개설, 학교연습팀의 최대한 활용, 선진임업국의 제도연구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3) 외국의 입학교육사례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의 도래와 국제화·세계화의 영향, 그리고 대학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개혁이 강요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공히 비슷한 분위기 하에서 입학교육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큰 범위로 입학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으로 좁혀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는 과목당 학점이 대부분이 2학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강의와 실습을 철저히 분리시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며, 실습의 내용도 매우 충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입학분야의 입학정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교수1인당 학생수도 적고 따라서 내실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학부졸업생은 대부분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원에서 전공지식을 심화시킨 다음에 전공관련분야에 취업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4) 대학교 임업교육의 발전방안으로서 입학교육내용의 재정립, 학제적 접근의 강화, 현장교육의 강화, 대학간 교류·협동·통합을 통한 교육강화, 입학교육의 기준설정 및 인증제 도입, 산림관리자격제도의 보완, 재교육과 평생교육체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학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